

가족에 죽도록 헌신하다 투명인간이 된 사나이

투명인간

성석제 지음

소설가 성석제가 우리 시대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무엇보다 그의 소설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흥미로운 인물들을 만나는 재미가 크다.

성석제의 신작 장편 소설 '투명인간'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기막힌 인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이자 평범한 한 가족이 삼대에 걸쳐 근현대사를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보여주는 풍경화다.

소설의 시작은 자살자가 유난히 많은 한강 마포대교다. 다리 위에 서 있는 이는 투명인간. 그의 눈에 한 남자가 보인다. 꼭 투신자살을 할 것처럼 보이는 남자다. 투명인간은 '머리가 유난히 큰, 흰 살이 남아 보였으나 막 산골에서 내려온 소년 같은



인상' 그 남자 '김만수' 역시 투명인간임을 알아본다. 이후 소설은 '김만수'가 투명인간이 된 사연을 좇아간다. 소설은 화자(話者)를 바꿔가면서 전개된다. '만수'에 대한 첫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소리는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엄마다. 이후 동생, 친구, 아내, 자식, 동료 등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만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만수의 삶을 완성해 나간다.

만수는 1960년대 두메산골에서 3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은 작은 소동이 어우러지며 소박하게 흘러가지만 큰 형이 베트남전에서 죽고 난 후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그와 가족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무능한 아버지 대신 가정이 된 그는 전문학교를 다니는 틈틈이 작은 공장에 입사해 돈을 벌며 가족을 부양하고 위장취업 후 행방불명이 된 동생이 남긴 아이를 키우고 여동생의 식당에 힘을 보탠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만 행복한 사

절은 짧았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에 마지막까지 남아 공장을 지키려던 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늘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며 그의 삶은 황폐화된다. 그럼에도 미련하리만치 묵묵히 가족과 주변인을 지키는 만수는 "죽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사는 게 오히려 쉬워요. 나는 포기 한 적 없어요."라는 삶의 자세를 지킨다.

문학평론가 엄무웅은 "재미와 감동, 압축 성장 시대의 사회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고뇌와 좌절이 실물 크기로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평했다. 그동안 성석제의 작업들이 이 장편 소설 하나를 위한 준비 또는 연습이 아니었다 생각될 정도라는 찬사도 더했다.

예전 실례의 작품을 일부 변형한 표지 그림이 소설의 스토리와 딱 어울린다.

〈장비·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행복한 책 읽기

전옥표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생각 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그동안 출간했던 전옥표 박사의 '이기는 습관'을 읽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명제가 주어진 실천을 할 차례, 그 어떤 칭찬과 격려보다 속 시원하고 명쾌한 답을 주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의 저자는 기업이 선호하는 강사 1위에, 직장인이 가장 달고 싶어 하는 선배가 들려주는 성공과 희망의 멘토링 우리 시대 최고의 경영 멘토답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다음 세대를 깨우는 글로도 활용되고 있다.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개인과 조직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인생 상담가이자 동기부여를 하는 비전 전도사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친구처럼 손 소리로 냉철하고 정확하게 조언해주는가 싶으면 어느 새 다가와 어깨를 만져주고 다독여준다. 감성적인 위로를 뛰어 넘어 현실에서 부딪히는 갈등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꼬이면 목욕하 실컷 울라고 한다. 한 번의 실패는 긴 인생에 있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슬프면 울어야 하고 기쁘면 웃어야 하는 게 자연의 순리인 만큼 '울어야 산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있다.



삶의 활력소 '희망 비타민'

그런데, 저자는 힘든 길을 선택하러나 이 무슨 고약한 명제인가. 말인즉슨, 자기연민에 빠져 편안한 선택을 하게 되면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것이다. 청춘은 원래 벽치고 힘들지만 머뭇거릴 때는 아니다. 역경이 없는 인생은 독이며 젊은 날의 실패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다고 말한다.

마라톤 영웅 황영조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금의환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훈련할 때 너무 힘들어서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던 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훈련 중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 힘들 때마다 운동을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수시로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모든 운동선수들이야말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은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래는 로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운 총계 얻어지지 않는다.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 기회는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 기회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미래를 향한 집념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

이 책에서 끌리는 말은 '영혼 관리'이다. 현재 자신 관리도 못하고 사는데 영혼을 관리하러나, 게다가 사후까지 어떻게 관리하러나 말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알고 보니 영혼 관리는 바로 마음 관리였다. 마음을 내 자유의지로 온갖 나쁜 유혹에서 관리해 내는 것이 영혼 관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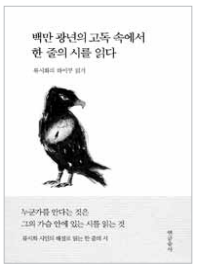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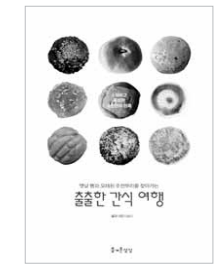
힘들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힘든 이유가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힘들 자체가 바로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희망은 희생 없이는 절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날마다 자신에게 활력소가 될 희망 비타민이라는 묘약을 섭취해서 푸른 새 기운을 얻어 보자.

전옥표 1999년 광주일보신춘문예 동화 당선

새로 나온 책

▲미술품 잔혹사=영국 국립조상화미술관 관장인 저자 샌디 네언은 미술품의 도난과 추적이 관한 이야기를 마치 미스터리 영화를 보는 듯 생동감 있게 들려준다. 엄청난 가격 때문에 암시장에서 저분하기 힘든 고가 미술품이 왜 끊임없이 절도범들의 타깃이 되는지 등의 이유를 고가 미술품의 도난 역사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고가 미술품의 도난과 추적, 그리고 회수에 이르는 과정의 은밀한 내막이 독자들의 흥미를 끈다. <미래의 창·1만3000원>

▲출출한 간식 여행=옛날 빵과 오래된 주전부리를 찾아가는 출출한 간식 여행. 전성시대를 맞은 전국의 옛날 빵집 이야기를 담았다. 100년이 되어가는 군산 이성당, 90년 된 순천 화월당, 60년이 넘는 전주 풍년제과와 목포 코롤방제과, 50년이 된 대전 성심당 등 이야기는 그 역사만큼이나 풍성하고 재미있다. 프랜차이즈의 거센 바람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킨 주인공



들이 들려주는 인기 비결은 비슷하다.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충실했다는 것이다. <즐거움상상·1만3000원>

▲백만 광년의 고독 속에서 한 줄의 시를 읽다=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라 일컬어지는 하이쿠는 5·7·5의 열일곱 자로 된 정형시다. 하이쿠모임집 '한 줄도 너무 길다'로 한국 독자에게 하이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류시화 시인이 그 후 15년의 시간을 바쳐 완성한 새로운 하이쿠 소개서. 750쪽의 이 책은 하이쿠의 원류인 일본의 대표적인 하이쿠 시인들의 작품을 모으고 각각의 하이쿠마다 충실한 해설을 붙였다. <연금술사·2만8000원>

▲토티와 탈무드=탈무드를 교재로 유대인의 전통교육 방식인 '하브루타'를 실천한 아버지의 이야기.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 학습법이다. 그들의 모든 교육은 지시나 강요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녀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신뢰하는 파트너와 함께 탈무드 본문을 읽고, 본문이 담고 있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자녀교육이다. <매일경제신문사·1만3000원>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결정하는 백악관 및 국무부 전·현직 고위관료, 정책 생산의 핵심종류인 싱크탱크 전문가와 학자 15인에게서 미국의 본심을 직접 묻고 캐낸 책이다. '아시아 회귀' 정책의 실질적 입안자인 커트 캠벨, 차기 동아태 차관보로 점쳐지는 리처드 부시 등의 견해를 고루 담아 '아시아 회귀' 전략의 배경과 의의를 중심으로 미중관계의 방향,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칠 영향력을 전망해본다. <창비·2만3000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생가능에너지=최근 몇 년 사이 재생가능에너지의 의미가 크게 부각됐다. 기후변화와 화석에너지 고갈에 따른 위기감 때문이다. 책은 재생가능에너지가 무엇인지, 재생가능에너지 공익이 독일에서 어떤 국민경제 효과를 가져왔는지 등을 살펴보고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로 나눠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다루고 있다. 그림, 사진, 통계 등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현주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수레·2만6800원>

어린이 책

▲길을 잃어도 문제없어!=아이가 길을 잃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되었을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 규칙을 알려 주는 그림책. 독일 작가의 그림책이지만 실제로 한국의 경찰청과 국내 실종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종 아동 예방 규칙'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아동 안전 지킴이' 표시도 함께 실었다. <풀빛·1만원>



▲가마귀가 친구하자고 한다고?=셋

기 싫어하는 아이와 그런 아이를 어떻게든 씻기려는 부모의 숨바꼭질을 유쾌하게 풀어낸 그림책. 찌는 것이 매일매일 하기 싫

어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놀이처럼 재미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과콩나무·1만1000원>

▲별들이 반짝반짝 외=생각이 크는 꼬마 전구 시리즈. 별과 행성으로 배우는 우주 이야기 '별들이 반짝반짝'과 화산과 지진으로 배우는 지구과학 이야기 '화산이 부글부글'이 나왔다. 각 장마다 큰 주제의 질문과 거기에 따라오는 소소한 질문과 답이 펼쳐져 있고, 맨 끝에는 큰 주제와

도 관련 있는 또 다른 주제의 질문들이 있다. <청어미디어·각 권 1만2000원>

▲명탐정 교실=현 초등학교 교사인 윤재중 작가의 창작동화. 얼굴만 보고 이름을 맞춰 보라는 이상한 선생님이 나타났더니, 당황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맞춰더니, 선생님 자신의 이름은 명탐정이고 동현이 반인 5학년 2반은 명탐정 교실이란 다. 모두가 명탐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명탐정이 되는 방법을 명탐정 선생님에게 물어보자. <소나무·1만원>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매>

모텔/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영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 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매 3억
- 나주시 시청앞 택지지구 4차선 도로변 대지 778㎡ 매 9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 과수원 (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방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9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덕 유 재 관

금매합니다

매매가격	매물종류	내용
2,600만원	오리소텔	금남로역세권 7층39㎡ 총72,600㎡(원)공실
4,000	무인리조트	금남로전철역입구 총168㎡ 유동인구 엄청
6,500	아파트전세	광안구도순종 중영아파트2층75㎡ L남인수가능
3,500	대학가상가	나주 대학앞 근영점 주택 대지579㎡
1,98,600	주택(원룸)	서동 주가2억이대신 대지111 원룸 최적
394,200	명원동	광주 롯데대 앞 15 보은9,000원339만포함
394,700	충장로5가 주상복합	원룸17 보은200만510포
795,000	대인동상업(4500㎡)	점포2 홀30 보은1억700포함
497,000	대학가전	영암국도변(연면적 1,053㎡) 일매100만(원)이상
4억	연향촌건물	대인동대문 앞 대지 3,298㎡ 건물2층
5억	예술거리	최고지 상업지165㎡주상복합4,000원150포
595,000	역사권빌딩	금남7가역입구 대지208㎡ 보은3,500원388만
795,000	역사권빌딩	대인동 상업지271㎡5층 보은9,000원450포함
1493,500	역대로빌딩	광남7가역195㎡298㎡ 보은1억 8800포함
24억	역대로코너	중상업지 대지410㎡2,600㎡보은2억1,000포함
3천~10억	임야,농장	화순 장영면담양 국도변 야산,농장 대수 확보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살맛납니다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부동산,건강,생활 정보가 가득합니다

하루8,000여명이 북적거리는 장터
여러분들 누구나[무료]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주세요

구합니다
찾는 지역,금액,월세비중이 맞지않아 대기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부동산이라면 워터
금액과 지역에 상관 없이 연락주세요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33.3% 호텔 "금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미노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 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

다와옥션 (법원경매추천물건)

주택 고흥군 금산면 어저리

대지 406㎡
건물 99.24㎡
최저가 2043만원
해수욕장 200m거리

봉선동 신축아파트 부근 코너

대지 236㎡
건물 584㎡
상권,입지조건
유동인구 최상
최저가 4억5300만원

5층원룸 동구 계림동

대지 205㎡
건물 2652㎡
감정가
4억2382만원
최저가
2억9668만원
※이외 다수물건 확보

경·공매전문 이 주원
010-7171-7610